

Aaron's Rod에 관하여

文 祐 相

로렌스는 *Aaron's Rod*의 집필을 1917년 10월과 1918년 2월 사이에 시작했으나, 그가 Berkshire로 옮겨 가기 전에는 아마도 착수하지 않은듯 하다. 그런데 이 날짜와 관련되는 한 중요한 일은 *Women in Love*가 1년이상 출판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The Rainbow* 역시 거의 출판될 가망이 없는 소설로 여겨지고 있었다. 출판사들이 로렌스의 작품에 관심이 없었던 시기에 그가 다른 소설을 쓴다는 것은 놀랄 일이다. 그는 1918년 9월에 천천히 이 작품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1919년에는 이 작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듯하다. 그는 1920년 여름에 *The Lost Girl*을 완성하기 2개월 전에 다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이 작품이 최종적인 형태로 완성된 것은 1921년 5월이었다. 그는 1921년의 5월 초에 독일 Baden-Baden에 거주하면서 이 작품을 계속 써서 한달만에 완성했다.

*Aaron's Rod*는 시간, 장소, 특히 그 관념에 있어서 여행 또는 진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그것은 잉글랜드의 중부지방의 작은 탄광촌 사회에서 런던을 거쳐, 이탈리아의 노바라, 밀라노, 플로렌스로 옮겨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된 결혼생활의 전통적 장면에서 대도시의 멋쟁이들의 일시적인 연애사건과 접잡고, 부유한 상류사회의 생활로 옮겨 가고, 거기서 미국출신의 후작부인의 코즈모폴리턴적인 생활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소설은 Aaron Sisson의 질문에 Rawdon Lilly가 답하는 두 사람만의 장면으로 끝난다.

이 소설은 1차대전의 영향에서 마침 회복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구세계에서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듯한 구세계에 속하는 밝은 대도시를 거쳐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생활의 뿌리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이러한 진행과정이 이 소설에 그 구조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은 주인공을 전통적인 가정생활과는 점차 멀어져 가는 일련의 관념과 주목할만한 경험을 거쳐가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소설이다.

로렌스의 전쟁후의 작품은 그의 의견의 방향에 새롭고 중요한 두가지 발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결혼관계 밖의 인간관계의 본질, 특히 정치인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욕망이고, 둘째는 영혼내부에 있는 미지의 힘에 점차로 매혹된 일이다. 따라서 그가 *Aaron's Rod*를 쓰고 있을 때, 그의 주요한 평론들이 심리에 관한 연구였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Aaron's Rod*는 그가 정신분석에 관한 책인 *Fantasia of the Unconscious*를 썼던 바로 같은 해에 쓰여졌다. 이 책은 소설과 동일한 주제들에 관한 것이며, 전쟁,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지도력의 필요성, 자유를 누릴 인간의 능력,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참다운 자유는 일종의 자발적인 복종에서 유래한다는 로렌스의 견해가 그것들이다.

*Aaron's Rod*는 실은 *Women in Love*가 내버려 둔 지점에서 시작되는 로렌스의 사색의 모험의 계속이며, 남녀관계의 주제를 한층더 탐구하여, 그 한계와 불충분함을 제시하고,

남성의 고립된 자신(self)에 대한 책임을 위하여 남성이 자기의 영혼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Jim Bricknell의 사랑에 관한 열변은, Lilly의 Tanny와의 관계에 관한 열변과 함께, Aaron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의 불만을 밝히는데 제각기 다르게 도움을 준다. Aaron의 Josephine Ford 및 후작부인과의 경험역시 이에 못지않은 같은 역할을 한다. *Aaron's Rod*는 이러한 주제를 한층 발전시켜 상상력 풍부하게 꾸며진 장면을 통하여 남성간의 관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관계가 취할 수 있는 한가지 가능한 형태를 실험하고 있다.

로렌스는 사랑은 목표가 아니라, 진화과정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here is no fulfilment in love. Half of our fulfilment comes *through* love... But the central fulfilment, for a man, is that he possess his own soul in strength within him, deep and alone. The deep, rich aloneness, reached and perfected through love.¹⁾

그는 한 편지에서 사랑은 부차적인 것이며,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영혼을 간직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One has to learn that love is a secondary thing in life. The first thing is to be a free, proud, single being by oneself: to be oneself free, to let the other be free: to force nothing & not to be forced oneself into anything...Love isn't all that important: one's own free soul is first.²⁾

남성은 결혼생활에서 자기의 완성과 존재를 유지하게 되지만, 그의 최종적 완성은 결혼생활을 넘어선 곳에 있다. 그는 결혼생활에서 자신을 완성한 후에 쉬지않고, 어떤 열정적이고 목적있는 활동에 참가하여 미래를 향하는 다음 단계를 위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로렌스는 그가 믿는 남성들이 함께 떠맡아야 할 일에 관해서는 *Aaron's Rod*와 같은 시기에 쓰여진 "Education of People"이 보여주는 이상으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Let there be again the old passion of deathless friendship between man and man. Humanity can never advance into the new regions of unexplored futurity otherwise...Friendship should be a rare, choice, immortal thing, sacred and inviolable as marriage. Marriage and deathless friendship, both should be inviolable and sacred: two great creative passions, separate, apart, but complementary: the one pivotal, the other adventurous: the one, marriage, the centre of human life; and the other, the leap ahead.³⁾

이 소설은 궁극적으로 남성의 세계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계획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행동은 다만 막연한 행동으로 남아 있다. 남성들간에 새롭고, 자발적인 관계를 확립할 필요성은, 그들이 상대방에게 새로운 태도, 즉 그들이 영웅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과 그들의 동료들에 대한 새로운 경의에 입각한 태도를 가

1) D.H. Lawrence,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and Fantasia of the Unconsciou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5), p.156.

2) Edward Nehls(ed), *D.H. Lawrence: A Composite Biography, Vol.1* (Madison,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77), p.500.

3) E.D. McDonald(ed),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H. Lawrence* (London, Heinemann, 1936), p.665.

적야 한다는 것인듯 보인다.

이러한 로렌스의 견해를 염두에 두고 이 소설에서 그의 견해가 어느 정도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하겠다. 이 소설에는 목적있는 활동에 관한 단지 얼마간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 어느 독자에게도 분명할 것이며, 소설중의 사건도 그러한 활동을 그다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설은 Aaron의 Lilly와의 관계가 어떤 성격의 것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매우 애매한 이 글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점에 있어서는 소설의 발전은 위에서 약술한 일반적인 관념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소설은 전쟁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는데, 그때 Aaron은 아직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훌륭한 집과 동료노동자들 사이에서 책임있는 지위를 가진 탄광촌의 성공한 일원이었다. 그는 결혼한지 12년이 되었으며, 아내와의 관계는 그가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으나, 지금에는 일종의 위기에 도달한 상태이다. 그들 부부사이의 이해할 수 없는 긴장은 그를 아내와 떼어놓고, 이 기묘하고 치명적인 대립은 Aaron에게 불쾌한 고통과 적대적인 긴장상태를 야기한다.

*Aaron's Rod*의 시초의 장면은 사랑이 없는 냉랭함이 가득찬 가정의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Aaron이 냉정하게 반항하는 것은 아내의 소유욕(possessiveness)이며, 남편에게 떠벌리는 그녀의 말은 비슷한 이상하고도 화나게 하는 소유욕의 표시라는 것은 누구나 깨닫게 된다. 딸인 Millicent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물에 집착하는 장면이 있다. 그녀가 단단한 유리로 만든 종을 고의로 깨뜨리고, 다소 고통과 당황함을 보이면서 한편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깨물고 서 있을 때, 이 일에 대한 부모의 논평은 그들의 대립과 충돌을 드러내는 듯이 보인다.

"She wanted to break it," said the father.

"No she didn't! What do you say that for!" said the mother. And Millicent burst into a flood of tears.⁴⁾

이 장식물을 깨뜨리게 되자 이 일은 Aaron의 마음속에 쉽게 진정되지 않는 반항을 일으킨다. 그는 바로 그날 밤에 아내가 그의 능력의 한계를 비난하도록 버려둔채 가족을 버리고 집을 떠난다. Aaron과 아내 Lottie 사이에는 소유욕과 자신(self)의 유지가 서로 충돌하는 파괴적인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그들의 태도는 몹시 확고하여 서로의 대립이 쉽게 해결되지 못할 지경에 있다.

아내의 불만과 딸들의 인쟁과 경쟁심 속에서 Aaron에게 남은 길은 가정에서 홀로 플루트를 부는 것과 밖에서 정열적이며 관능적인 여주인이 경영하는 선술집에서 남성들과 토론하며 기분전환을 하는 일이다. 그는 한때 주위에 대한 적대의 감정을 잊으려고 노력하여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을 고치는 방법은 대개는 여인, 술, 그리고 그의 음악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방법도 그에게는 소용이 없게 되고 이 긴장된 인지도 않은 주위에 대항하는 태도가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의 환경에 대한 초연하고 냉담한 태도는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이 인생의 마력에 대해서 그 문을 열기 시작할 때까지 강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는 선술집의 여주인과의 접촉마저 싫

4) D.H. Lawrence, *Aaron's Rod* (London, Heinemann, 1952), p.13. 이하 작품은 이 판에 따르고, 페이지만 표시함.

증이 나고, 한때 그의 감각을 몹시 자했극던 그녀의 관능성 역시 그를 냉담하게 만들고, 그녀에게 적개심마저 느낀다. 그는 아내의 생각을 하면 한층 강한 완고한 상태에 빠지고 더욱 냉담해진다. 아내에 충실하지 못한 그의 태도는, 그 자신의 의지처럼, 아내의 의지를 오직 강하고도 긴장을 풀지 않게 만들고,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교착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후 Aaron은 갑자기 아내와 딸들을 버리고 집을 떠난다. 그가 그와같이 집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소설에서 세번의 기회에 Aaron에게 가족을 떠난 이유를 묻는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Josephine Ford, Sir William Franks 그리고 Aaron 자신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Lilly와 Aaron의 아내는 그 까닭을 묻지 않는다.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Tell me! Tell me what I’ve done. Tell me what you have against me. (p.132)

그녀는 남편이 집을 떠난 것은 그녀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그녀가 이 일을 보는 유일한 시각이다. 그러나 Aaron은 분명히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 때문에 집을 떠나지는 않았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서 그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느낌을 말하고 있다.

“I am married to Lottie. And that means I can’t be married to another woman. (p.278)

그는 사랑과 독립(singleness)에 관한 자신의 본능에 호응하여 집을 떠나게 되고 Josephine Ford나 Sir William 같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은 그에게는 없다. Josephine은 그녀의 성격의 탓으로 그 회답은 틀림없이 사랑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짐작한다. 그리고 Sir William은 “Mere caprice?” “Not that you loved any other woman?” “You just left off loving?” 등의 분명한 해결책을 시도한 후에 “Well, well! Well-well! Life! Young men are a new thing.” (pp.154-6)이라고 말하며 거기에서 회답을 구하려고 한다. 한편으로 Aaron은 “I went away...from it all.” (p.155)이라고 말하는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 소설은 그 기초를 두고 있다.

Aaron과 Lottie와의 결혼생활은 거의 당장에 대립관계로 변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Aaron은 아내를 사랑하고 결코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일은 없었다. Lottie 역시 그를 열렬히 사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곧 일종의 싸움과 증오로 변한다. 그와 Lottie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더라도 언제나 그들이 으름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성장했다. 그 위에 그녀는 여성은 창조의 중심이며, 남성은 부속물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She, as woman, and particularly as mother, was the first great source of life and being, and also of culture. The man was but the instrument and the finisher. She was the source and the substance. (p.169)

이와같이 그녀는 여성은 생명의 중심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다. Aaron은 어느 정도 아내에게 양보하고, 궁극적인 완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녀에게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당시의 일반의 생각에 찬동한다. 그리하여 그는 이전과 같이 아내를 받들고 사랑하기 시작한다. 얼마동안 Lottie는 그의 사랑하는 태도에 속게 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식적인 마음을 속일 수는 있으나 깊은 무의식적인 본능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 그리

하여 그녀는 무서운 증오를 폭발시키면서 그를 경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이 놀랍고도 신기한 그들 사이의 강력한 정열에도 불구하고, Aaron이 그녀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일이 없이, 그 속마음을 주기를 보류하여 왔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동안 깨닫지 못한다.

He never gave himself. He never came to her, *really*. He withheld himself. Yes, in those supreme and sacred times which for her were the whole culmination of life and being, the ecstasy of unspeakable passional conjunction, he was not really hers. He was withheld. He withheld the central core of himself, like the devil and hellfiend he was. He cheated and made play with her tremendous passional soul, her sacred sex passion, most sacred of all things for a woman. All the time, some central part of him stood apart from her, aside, looking on. (p.171)

Aaron은 그의 의식적인 가면아래 있는 열정적인 영혼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의 마음 속에는 또하나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것은 여성을 존경할 수 없는 정신이다. 그러나 Lottie는 그녀의 자선심 많은 사랑으로 남편을 감쌀 수 있도록 그는 아내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She was quite sure that the highest her man could ever know or ever reach, was to be perfectly enveloped in her all-beneficent love. This was her idea of marriage. She held it not as an idea, but as a profound impulse and instinct: an instinct developed in her by the age in which she lived. (p.170)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녀는 남편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알게 되어, 그녀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For all her instinct, all her impulse, all her desire, and above all, all her *will*, was to possess her man in very fulness once: just once: and once and for all. Once, just once: and it would be once and for all.

But never! Never! Not once! Never! Not for one single solitary second! Was it not enough to send a woman mad. Was it not enough to make her demented! Yes, and mad she was. (p. 171)

Lottie는 착한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녀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의 싸움에서 결코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She the woman, the mother of his children, how should she ever even think to yield? It was unthinkable. He, the man, the weak, the false, the treacherous, the halfhearted, it was he who must yield. (p.172)

그녀는 이 싸움에서 항복한다면 여자보다 못하게 되며, 여자로서 그녀의 신성한 책무를 포기하는 일로 생각한다.

Aaron은 그를 죄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내의 무서운 의지의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에는 될 수 있는한 아내를 혼자 버려두고, 다음에는 그녀에게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그녀는 몹시 화를 내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고, 그녀에게 냉담하게 대한다. 여기서 그녀는 여자의 모든 의지의 힘을 불러 일으켜 그와 싸운다. 그녀의 의지는 강철보다 강하

고, 상대를 압박하고, 늦출 줄 모르는 두려운 것이다. 이리하여 두개의 의지는 서로 얽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상태에 빠진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어느 편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역시 그들의 의지는 그 긴장을 풀지않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상태에 도달한다.

It was a cold and fatal deadlock, profitless. A life-automatism of fixed tension that suddenly, in him, did break. His will flew loose in a recoil: a recoil away from her. He left her, as inevitably as a broken spring flies out from its hold. (p.173)

Aaron은 그가 아내를 저버린 까닭을 아직도 충분히 알아채지 못하고, Lottie 또한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녀에게 자신을 내맡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집을 떠나게 된 것을 이 사실과 결부시키지는 않는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짐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그가 떠나게 된 까닭은 그의 철저한 이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You’re unnatural. You’re not a man. You haven’t got a man’s feeling. You’re nasty, and cold, and unnatural. And you’re a coward... You’re evil, that’s what it is—and weak. You’re too weak to love a woman and give her what she wants: too weak. Unmanly and cowardly, he runs away.” (p.132)

그녀는 그의 행동에 완전히 당황하고, 그것에 대한 수궁할 수 있는 해명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럴것이 그는 아내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없이 도망을 갔기 때문이다. Aaron은 오직 마음속에 늦출 수 없는 긴장을 느끼며, 그가 버리고 떠나는 장면을 싫어하면서 도망친다. Josephine Ford가 그에게 아내를 버린 이유를 물을 때 그에게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그녀가 아내와 딸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Yes, I did. For no reason—except I wanted to have a bit of free room round me—to loose myself.”

“You mean you wanted love?” flashed Josephine, thinking he said *lose*.

“No, I wanted fresh air. I don’t know what I wanted. Why should I know?”

“But we must know: especially when other people are going to suffer so,” said she.

“Ah well! A breath of fresh air, by myself. I felt forced to love. I feel if I go back home now, I shall be *forced*—forced to love—or care—or something.” (p.71)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그의 주장은, 사회적 도덕의 관점에서 보는 의무와 책임을 그가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한층 깊은 도덕적 책임을 받아 들인다는 뜻이다. Sir William과의 대화에서 Aaron은 그가 아내와 딸들을 떠나게 된 것을 자연현상에 비유한다.

“It happened to me: as birth happened to me once—and death will happen. It was a sort of death too: or a sort of birth. But as undeniable as either. And without any more grounds.” (pp.154-155)

Aaron은 그가 취한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나, 그가 열정적인 영혼속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다.

Aaron은 여전히 그의 가정에 애착을 느끼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줄 충분한 돈을 준비해 두고, 자신을 위해서는 매우 적은 액수의 돈을 따로 떼어 두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혼, 양심, 그리고 행동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용의는 없다. 그가 집을 버린 양심의 가책에 압도되어 거의 1년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상충되는 감정으로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다. 그는 아내와의 깊은 화해를 예상하고, 그녀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낀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만나 증오에 찬 목소리를 들을 때, 그는 또다시 그를 파괴하려는 듯한 기묘한 기분과 감정에 직면한다. 곧 이전의 지배에 관한 문제가 그의 마음에 일어난다.

They were like electric shocks, which he felt she emitted against him. And an old sickness came in him again. He had forgotten it. It was the sickness of the unrecognised and incomprehensible strain between him and her. (p.131)

Lottie는 남편의 그녀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가를 말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이 문제의 근원은 의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몹시 깊은 곳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그녀는 화해할 결심을 하여, 그가 그녀에게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도록 그에게 간청한다. 이때 그는 그의 간청의 태도에서 그녀의 강철같은 심장을 느끼게 되어 그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느 편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He had not the faintest feeling, at the moment, of his own wrong. But she wanted to win his own self-betrayal out of him. He could see himself as the fascinated victim, falling to this cajoling, artful woman, the wife of his bosom. But as well, he had a soul outside himself, which looked on the whole scene with cold revulsion, and which was as unchangeable as time.

"No," he said, "I don't feel wrong..." She was defeated. But she too would never yield... Come life, come death, she too would never yield. And she realised now that he would never yield... He too would never yield. The illusion of love was gone for ever. Love was a battle in which each party strove for the mastery of the other's soul. So far, man had yielded the mastery to women. Now he was fighting for it back again. And too late, for the woman would never yield. (pp.134-135)

Aaron과 Lottie는 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그들의 싸움은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다. 그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부터는 부부간의 생활이 아니라, 홀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결심한다.

To be alone, to be oneself, not to be driven or violated into something which is not oneself, surely it is better than anything... That is the only way to final, living unison: through sheer, finished singleness. (p.136)

Aaron은 다시 런던으로 돌아간다. 그는 그곳이 그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므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Lilly가 이탈리아로 떠난 것을 알고서 그를 뒤따라가기로 작정한다. 그는 어느 일요일 저녁에 이탈리아의 노바라에서 처음으로 Lottie와의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막연히 의식하게 된다. 그는 그들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막다른 지경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의 잘못이 아니라, 양쪽에 함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편견없는 논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도 많은 싸움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하여 이전에는 당황했다. 그런데 지금은 비록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은 적어도 그들에게 뚜렷이 존재하고 있다.

He realised that he had never intended to yield himself fully to her or to anything: that he did not intend ever to yield himself up entirely to her or to anything: that his very being pivoted on the fact of his isolate self-responsibility, aloneness. His intrinsic and central aloneness was the very centre of his being. Break it, and he broke his being. Break this central aloneness, and he broke everything. It was the great temptation, to yield himself: and it was the final sacrilege. Anyhow, it was something which, from his profoundest soul, he did not intend to do. By the innermost isolation and singleness of his own soul he would abide though the skies fell on top of one another, and seven heavens collapsed. (p.173)

그는 이러한 생각이 그의 잠재의식속을 지나가는 것을 막연하게 깨닫는다. 그의 생각은 말과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말없는 조용한 이해의 경우이다. 그런데 Aaron은 과거처럼 현재도 강력하고도 잠재의식적으로 그의 아내나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Now he realised that love, even in its intensest, was only an attribute of the human soul: one of its incomprehensible gestures. And to fling down the whole soul in one gesture of finality in love was as much a criminal suicide as to jump off a church-tower or a mountain-peak. Let a man give himself as much as he liked in love, to seven thousand extremities, he must never give himself *away*. The more generous and the more passionate a soul, the more it *gives* itself. But the more absolute remains the law, that it shall never give itself away. Give thyself, but give thyself not away. (p.176)

Aaron은, 고립의 상태 그 자체가 사랑의 과정의 한 큰 단계의 완성을 표시하는 한가지 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홀로 있을 필요성을 마침내 받아 들인다. 이 고립의 성취는 단지 다음 단계의 더 완전하고 중요한 관계의 준비이다. 이리하여 Aaron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와 함께 묶었던 모든 옛날의 끈을 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Only let him *not* run into any sort of embrace with anything or anybody—this was what he asked. Let no new connection be made between himself and anything on earth. Let all old connections break. This was his craving. (p.190)

어떤 면으로는 그는 이와같이 하여 자신의 내부의 운명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처지가 그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문한다. “Why break every tie?... In God’s name, why?”(p.190). 모든 중요한 관계의 단절에서 그가 도달하는 것은 공허한 무(nothingness)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는 멀지 않아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aron의 아내와 딸들과의 고립은 이번에는 그의 환경과의 소원함을 초래한다. 그런데 이 고립을 역전하는데 있어서, 그가 뜻있는 관계를 맺기전에 먼저 자연환경과의 화합을 이루게 된다. Aaron이 주위의 천지만물과의 접촉을 상실한 점을 이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다루

고 있다. 그가 이탈리아에서 주위환경과의 접촉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노바라에서 맞는 첫날 아침에 그가 창문넒으로 보는 아름다운 경치, 굽이치는 강, 눈에 덮인 사막 등 그 모두가 그를 위해서 만물을 살아나게 한다. 잠자던 영국인의 본성이 잠결에 놀란다. 그는 그의 내부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책임과 대면할 뜻이 없어 아직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지 않는다.

Wake up and enter on the responsibility of a new self in himself. Ach, the horror of responsibility! He had all his life slept and shelved the burden. And he wanted to go on sleeping... He felt some finger prodding, prodding, prodding him awake out of the sleep of pathos and tragedy and spasmodic passion, and he wriggled, unwilling, oh most unwilling to undertake the new business. (p.161)

Aaron은 그의 주위 도처에서 새로운 생명의 특질을 느낄 수 있으며, 이탈리아에서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를 의식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아직이 새롭고 자연스러운 생명의 원동력에 충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며칠후 이른 가을의 매우 화창한 날에 기차로 밀라노에서 플로렌스로 여행하면서, 그는 롬바르디아의 넓은 평원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그에게 감명을 주고 그를 황홀하게 하는 풍경에는 일종의 대담함, 무관심, 그리고 솔직함이 있는 듯이 그는 느낀다. Aaron은 마침내 미켈란젤로의 다윗의 조각상이 있는 플로렌스의 Signoria 광장에서 생명있는 세계의 중심지에 왔다고 느낀다. 그는 또한 자기의 내부에 새로운 자신(self)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Aaron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고 느끼며, 그의 플루트의 도움으로 후작부인을 새로운 여인으로 깨어나게 하는데 성공한다. 오랜동안 그의 마음은 억압되어 굳어지고 여인에 대한 그의 욕망도 억제되어 왔다.

All his deep, desirous blood had been locked, he had wanted nobody, and nothing. And it had been hard to live, so. Without desire, without any movement of passionate love, only gripped back in recoil! That was an experience to endure. (p.269)

그러나 이제는 그의 욕망이 쇠처럼 강하고도 사납게 다시 그에 돌아 온다. 그는 마침내 그의 차레가 돌아왔다고 느끼며, 아론의 지팡이는 다시 꽃피게 되리라고 느낀다. 여러해 동안 어둡고 역겨운 감정과 도덕적 필요성의 감옥에 갇혔던 후에, 후작부인 역시 악취풍기는 무서운 인생의 성 밖에서 Aaron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그것이 이전의 그의 연인들과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의 본래의 침범할 수 없는 영혼을 홀로 있게 한다면 Aaron에게는 성공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후작부인과의 관계는 시초부터 그의 내부의 갈등을 의식하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 흡수될 것을 예상하면서 몹시 두려워한다. 그녀의 남편의 말에서 추측한다면 후작부인은 남성을 이용하여 그녀의 욕망에 시중들게 하려는 여인이다. 그녀의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She may love me, she may be soft and kind to me, she may give her life for me. But why? Only because I am *hers*. I am that thing which does her most intimate service. She can see no other in me. And I may be no other to her—” (p.255)

Aaron은 후작부인이 그를 개인으로서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를 단순한 마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멀리않아 발견한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마력도 결수 없으며, 오히려 그녀는 그의 남성적 힘과 욕망이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그녀의 부드러운 흰 육체를 온통 소유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가 이 부드러운 육체는 치명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관계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전밀감 혹은 다정함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파괴적인 관능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의 욕망과 그 자신이 비참하게 파괴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Aaron이 Lottie와의 관계가 그의 본질적이며 중요한 고립을 침범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의 후작부인과의 자기본위의 관계가 그의 중심적인 생활을 손상했다는 느낌을 그에게 주는 것은 피치못할 일이다.

In him, however, there was always something, all the time something hard and reckless and defiant, which stood apart. She was absolutely gone in her own incantations. She was absolutely gone, like a priestess utterly involved in her own terrible rites. And he was part of the ritual only, God and victim in one. God and victim. All the time, God and victim. When his aloof soul realised, amid the incantation, how he was being used,—not as himself, but as something quite different: God and victim; then he dilated with intense surprise, and his remote soul stood up tall and knew itself alone. He did not want it—not at all. He knew he was apart. (p.285)

Aaron의 후작부인과의 관계는 그의 Lottie와의 대립의 성격을 밝히는 동시에 그가 고립하여 자신의 영혼을 소유해야 할 필요성을 그에게 다시 강력하게 인식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점이 Aaron과 후작부인에 관한 이야기의 취지라고 하겠다.

이 고립(aloneness)의 주제는 또한 Aaron을 Lilly와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Daleski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t begins very much to look as though Aaron's experiences with women must, at all costs, result in disillusion so that he will be left free for Lilly.⁵⁾

이 소설에서 사랑, 결혼, 권력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소유에 관해서 Lilly가 말하고 있는 모두가 이 소설에서 시험되고 있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다. 독자는 먼저 Lilly가 Jim Bricknell과의 논의에서 사랑의 주제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Jim은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그를 떠나가려고 한다고 불평을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sacrifice myself to love. I reckon that's the highest man is capable of." (p.82)

이에 대해서 Lilly는 사랑은 악행이며, 창피스러운 행위이며, Jim이 생명을 잃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Jim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사랑을 갈망하고 자기 희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Lilly는 그에게 아래와 같이 충고한다.

You shouldn't want to fling yourself all loose into a woman's lap. You should stand by yourself and learn to be by yourself. (p.86)

5) H.M. Daleski;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H. Lawrence* (London, Faber and Faber, 1965), p.199.

Lilly의 Aaron과의 대화에서 특히 상세하게 진술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Aaron의 경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Aaron도 Jim처럼 자신(self)이 사랑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자신을 사랑에 바치는데 있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사랑의 과정을 최종의 목표로 잘못 생각하여 왔다.

Love is a process of the incomprehensible human soul: love also incomprehensible, but still only a process. The process should work to a completion, not to some horror of intensification and extremity wherein the soul and body ultimately perish. The completion of the process of love is the arrival at a state of simple, pure selfpossession, for man and woman. Only that...

Perhaps, truly, the process of love is never accomplished. But it moves in great stages, and at the end of each stage a true goal, where the soul possesses itself in simple and generous singleness. (p.177)

Lilly는 남녀가 부부로서 생활하기 전에 먼저 홀로 설수 있도록 배워야 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

“Everybody ought to stand by themselves, in the first place—men and women as well. They can come together, in the second place, if they like. But nothing is any good unless each one stands alone, intrinsically.” (p.96)

그는, 결혼의 관계를 자기만을 의식하는 이기적인 상태라고 말하고, 남성이 홀로 일어설 수 있고, 다른 남성들과 결속하여 모험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확장되고, 제조정되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⁶⁾ Graham Hough는 이 점에 관해서 의심을 표시하고, Lilly와 Aaron의 논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they are looking for a substitute for marriage rather than a solution of its problems.⁷⁾

그와 같은 Lilly의 견해는 감기에 걸린 Aaron을 그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Lilly가 그의 복부를 기름으로 마사지하는 장면으로 입증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He rubbed every speck of the man's lower body—the abdomen, the buttocks, the thighs and knees, down to the feet, rubbed it all warm and glowing with camphorated oil, every bit of it, chafing the toes swiftly, till he was almost exhausted. Then Aaron was covered up again, and Lilly sat down in fatigue to look at his patient. (p.102)

그런데 Aaron을 간호하는 장면을 주의깊게 읽으면 Lilly는 사랑, 동정, 그리고 희생을 토대로 하는 다른 남성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진다. Lilly는 Aaron을 간호하면서 그가 명치를 Jim에게 맞았을 때 아내가 말한 것을 회상한다.

“You shouldn't try to make a little Jesus of yourself, coming so near to people, wanting to help them,” (p.90)

이제 그는 Aaron이 회복하면 그도 간섭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명치를 칠는지 모르겠다

6) *Aaron's Rod*, pp.105-7 참조.

7) Graham Hough,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London, Duckworth, 1956), p.80.

는 생각을 한다. 그는 예수와 같은 인물은 유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한다.

“All right, Aaron. Last time I break my bread for anybody, this is. So get better, my flautist, so that I can go away.” (p.103)

Lilly가 남성은 그의 영혼을 끈기있고도 조용히 지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소극적인 해탈과 같은 상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Aaron과의 긴 대화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 또는 증오가 끊이지 않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다음과 같이 하여 달성될 수 있다.

“It's what you get to after a lot of fighting and a lot of sensual fulfilment. And it never does away with the fighting and with the sensual passion. It flowers on top of them, and it would never flower save on top of them.” (p.111)

남성이 그의 영혼을 충분히 소유하는 기초는 결혼생활에서의 흡족한 관능적 성취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남성은, 그의 아내가 역시 자기의 힘으로 그녀 자신의 영혼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가장 훌륭하게 고립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 Lilly는 이것이 그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Aaron에게 말한다.

...And if Tanny possesses her own soul in patience and peace as well—and if in this we understand each other at last—then there we are, together and apart at the same time, and free of each other, and eternally inseparable... You learn to be quite alone, and possess your own soul in isolation—and at the same time, to be perfectly *with* someone else—that's all I ask.” (p.111)

Lilly가 그 이후의 대화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인간은 완전한 고립상태에서도 감상적이거나 고독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의 본성에 의하여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그가 하나의 독자적인 영혼인 한에 있어서는 그는 사실상 고립 상태에 있는 것이다.

“In so far as he is a single individual soul, he *is* alone—*ipso facto*, In so far as I am I, and only I am I, and I am only I, in so far, I am inevitably and eternally alone and it is my last blessedness to know it, and to accept it, and to live with this as the core of my self-knowledge.” (p.258)

Aaron은, Lilly가 고립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그의 영혼으로서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몹시 부러워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매달릴 것이 없어 아직은 홀로 설 수 없다고 느낀다. 어느 점에서는 Aaron에 관한 이야기는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려는 그의 노력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끈기있게 조용히 소유해야 한다고 Lilly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Aaron은 이를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실생활에 있어서 사람은 끈기있게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when you've got to live—you don't possess your soul neither in patience nor in peace, but any devil that likes possesses you and does what it likes with you, while you fridge yourself and fray yourself out like a worn rag.” (p.110)

그러나 Lilly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후작부인과의 경험에서 느낀 환멸후 오랜 기간 그것이 떠오른다. Aaron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녀에 대한 깊은 증오심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No, I won't hate her. I won't hate her”. (p.274). 그는 자신의 영혼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열정의 반사작용을 따르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Aaron은 후작부인 역시 자신의 운명과 싸우고 있으며, 그에게 매우 관대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녀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으려고 결심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Lilly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그의 도움으로 자신의 위치를 어느정도 이해하게 된다. Lilly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에서 그에게 그의 첫째이며 마지막의 의무는 그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There is only one thing, your own very self. So you'd better stick to it...You've got one job, and no more. There inside you lies your own very self, like a germinating egg... and since it is the only thing you have got or ever will have, don't go trying to lose it. You've got to develop it, from the egg into the chicken, and from the egg into the chicken, and from the chicken into the one-and-only phoenix, of which there can only be one at a time in the universe...Your own single oneness is your destiny. Your destiny comes from within, from your own self-form. And you can't know it beforehand, neither your destiny nor your self-form. You can only develop it. You can only stick to your own very self, and *never* betray it...” (p.308)

인간이 전개할 운명은 자신의 내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는 충동이 어떤 것이든간에 자신의 영혼의 충동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Lilly는 장황하게 말을 계속한다. 만일 영혼이 누구에게나 사랑하도록 재촉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해야한다. 그런데 Lilly는 또한 사랑과 정열은 목표가 아니라 단지 한가지 수단에 불과하고, 유일한 목표는 영혼의 적극적인 욕망과 암시를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설득한다. Aaron은 이러한 그의 말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랑을 최고의 충동으로 만드는 것과 사랑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에 동의한다.⁸⁾ 그러나 Lilly가 계속하여 권력에 대한 그의 의견을 설명하고, 권력의 형태에 있어서 여성은 자발적인 복종의 태도로 남성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는 이 의견에 묵종하지 않는다. Aaron은 우선 Lilly가 권력충동(power-urge)에 부여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그것에 부여하지 않으며 “I don't see power as so very important.” (p.306)라고 그에게 말한다. 또한 그는 Lilly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positive power-soul in man” (p.312)에 여성이 복종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아가서 Lilly는 Aaron이 위대한 남성의 영웅적인 영혼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소설은 Aaron의 영혼이 그가 누구에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 줄 것이라는 Lilly의 말로서 별다른 결론없이 끝난다. 이 소설은 권력의 주제가 로렌스의 다음 소설인 *Kangaroo*와 *The Plumed Serpent*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도록 남겨 두고, 적절한 결말을 맺었다고 생각된다.

이 소설에 대한 비난의 말이 많은데, Frank Kermode는 그 형식에 관하여 “complete indifference to the form of the novel.”⁹⁾이라고 말하고 있다. Keith Sagar는 소설전반에 관

8) *Aaron's Rod*, pp.309~10 참조.

9) Frank Kermode, *Lawrence* (Bungary, The Chaucer Press, 1973), p.80.

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the novelist himself to a large extent shares the doubts and vacillations of his characters. The vision of disintegration has overwhelmed the integrity of the artist, which cannot create firm values out of the chaos he contemplates.¹⁰⁾

특히 Eliseo Vivas는 누구보다 이 소설을 강력하게 공격하면서 ‘...the worst of his novel is, in my opinion, *Aaron's Rod*... The book shows no trace of creative imagination whatever.’¹¹⁾라고 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묘사되는 모든 내용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으며, 주제의 면에서 볼 때, 소설 전체에 통합되지 않는 장면과 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활기있는 중요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Middleton Murry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Aaron's R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as happened to English literature since the war. To my mind i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Ulysses*.¹²⁾

이 소설이 강조하고 있는 고립의 문제는, 로렌스의 모든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남녀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인간의 첫째의 의무는 자신 및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이라는 로렌스의 견해를 가장 명료하고도 강력하게 진술한 하나이다. 이 소설은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 많은 결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몇가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남성간의 관계가 비록 결정적이지는 못하지만 *Women in Love*의 경우보다 한층 충분히 탐구되고, 남녀관계에 있어서의 실패와 좌절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 지고 있다.

10) Keith Sagar, *The Art of D.H. Lawrence*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 114.

11) Eliseo Vivas, *D.H. Lawrence: The Failure and the Triumph of Art*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61), pp. 21-2.

12) R.P. Draper(ed), *D.H. Lawrence: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0), p. 177.